

**[일대일로 맺어진 우리 가족 9]**  
**“일대일 양육은 사명을 받은 평신도 목회입니다”**

2001 / 페이지 수: 3

**준비하는 자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김원경 장로의 동반자였던 박봉래 집사에게서 이미 김 장로의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을 소개받은 터였다. “내게서 일대일 양육을 받았던 동반자들이 교회 안 멀리서도 나를 알아보고 달려와 반갑게 인사해줄 때와 그들이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사역하는 모습을 볼 때, 또 다른 양육자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힘이 납니다.”

그의 성품답게 김 장로는 중학교 때 친구 따라 간 교회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났고, 군대에서도 신앙생활은 꾸준히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때의 신앙은 경건생활일 뿐이었다.

오랜 공직생활과 사업으로 승승장구하던 김 장로에게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없었다. 한참 젊은 시절 그에게는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없었다.

그러던 그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면서, 부흥집회에 참석하였다가 성령체험을 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인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로 강박하고 고집이 세던 김 장로를 변화시켜 주셨다. 그때가 75년 이었고, 그 감동은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지금은 비록 젊은 시절의 부와 명예는 없지만,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다고 김 장로는 말한다.

일대일 양육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것을 부탁드렸다.

“일대일은 성경공부가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 서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서로 교통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김 장로는 양육자나 동반자 모두가 일대일을 하기 위해 만나는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여겨 준비하는 자세만 갖는다면 그 곳에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한다.

**일대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일대일 접수를 하는 로비 벽면에는 일대일 상징인 키 모양의 큰 그림이 걸려 있다. 박봉래 집사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일대일 홍보팀의 작품이다. 박 집사는 그림을 소개하면서 요즘은 일대일 홍보팀 일로 양육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말을 이었다. “팀원으로 섬기다보니 양육이 얼마나 귀한 사역인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휴면 양육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양육을 받고자 대기하고 있는 성도도 많구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을 썩히고 있는 거지요. 오늘을 계기로 저도 양육을 다시 시작 해야겠습니다”며 웃는다.

박 집사는 현재 대학에서 산업디자인을 가르치고 있다. 하나님께서 개인 연구실을 주셔서 기도하고 성경공부하기에 좋은 환경을 열어주신 데에는 뜻이 있을 것이라며, 하나님 나라의 황금어장인 학교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신이 사용되어지길 소망하고 있다.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지만, 그 어느 것도 의지대로 된 것은 없었습니다.” 박 집사는 양육을 하면서 군대의 오시범 조교처럼 젊은 시절 불순종했던 자신의 삶을

나누면서 젊은이들이 자신과 같은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돕고 싶다고 한다.

박 집사의 동반자였던 박용식 집사는 현재 일대일 팀에서 전산으로 섬기고 있다. 덕분에 박용래 집사와 박용식 집사는 꾸준히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일대일 교재 만드는 일에도 동참하여 술선수범이었다는 박용식 집사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터 다니기 시작한 교회를 청년 때까지 열심히 섬겼었다고 한다. 작은 교회였기에 청년으로서 할 일이 많았다. 그렇지만 말씀과 양육에 대한 갈증은 항상 남아 있었다. 당시 큐티가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학생부장으로 섬길 때는 큐티 노트를 만들어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일을 섬겼지만 결국에는 항상 좌절감을 맛보아야 했던 박 집사는 신앙의 방향기를 맞았다.

그러던 99년 1월 우연히 온누리교회 남성 집회에 참석했다가 등록교인이 되었다.

“박용래 집사님과 일대일을 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삶을 나누면서 아내와의 관계도 회복되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를 돌보면서 어느새 하나님보다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박 집사는 자신이 속해 있는 인천4순의 일대일 양육자 훈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가져야 할 선교사명으로 양육에 참여하게 되었다.

“사실 그때만 해도 일대일에 큰 기대는 없었습니다. 그저 청년 때에 IVF와 네비게이토에서 받았던 훈련의 연장 정도로만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양육자가 되고 보니 한 형제의 영혼을 위해 그저 기도로 준비는 하였지만, 교재 한 권으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다는 거였다.

일대일을 시작하고 3주 후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는 승연 형제의 간증을 듣고서 박 집사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다.

“그동안 내 욕심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당기려 했던 교만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양육자가 되어 또 다른 은혜를 맛보았습니다.”

## 양육자 닳은 양육자 될 터

“일대일을 시작하고서 결혼도 했고, 구원도 받았습니다.” 박 집사의 동반자 유승연 형제는 지난해 7월에 일대일을 끝내고 현재는 세례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승연 형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이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가장 친한 친구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빠져나오는 데 시간이 걸렸다. 그러다 대학에 들어가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교회 성가대를 섬기고 있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었다. 승연 형제는 당시 친구를 따라 교회에 나왔지만, 기도시간에 하나님과 뜨겁게 대화하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소외감을 느꼈었다고 고백한다. 그 이후 같은 합창단원으로부터 소개받은 지금의 아내와 교재를 하면서 온누리교회에 다니게 되었다.

“설교시간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짜릿한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목회자 집안에서 성장한 신실한 자매와 결혼도 하였고,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였다.

승연 형제는 일대일을 하기 전 처음으로 ‘생명의 삶’을 산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런 글을 읽었다고 한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친구에게 다른 친구가 ‘너는 교회에 가면 뭐가 좋냐’라고 묻자 ‘내가 교회에 나가기 전에는 아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변했

다. 그리고 가정의 중요성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생겼다.”

그 글이 승연 형제에게는 충격이었다고 한다. 일대일을 하면서 내내 고민을 했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해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한다.

“박 집사님께 감사합니다. 일대일을 하면서 내 고민을 세심하게 들어주셨고, 관심을 갖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날 선물로 주신 한홍 목사님의 ‘거인들의 발자국’의 내용은 감동적이었습니다. 읽으면서 박 집사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양육을 하게 되면 박 집사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연락을 자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양육자가 되고 싶냐는 질문을 던졌다. 승연 형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인지 양육자가 되면 초 신자들도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여 섬기고 싶다고 한다. 앞으로 양육을 하면서 받게 될 은혜를 생각하니 벌써 설렌다고 덧붙인다.

**\* 출처 : 큐티와일대일**